



“아픈 자녀 귓속 상태 집에서 간편하게 확인”

영유아 자녀가 아플 때는 체온과 신체 특이사항 등을 기록해 가져오라는 병원 요구를 자주 받는다. 하지만 일일이 수치를 기록하는 일이 여간 번거롭지 않다. 목이 붓고 실핏줄이 터지는 등 수지로 나타낼 수 없는 증상을 적는 것도 쉽지 않다. 아람휴비스가 오는 11월 출시하는 가정용 모바일 영상복합의료 기기 베베스캔(사진)은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제품이다.



귀·입속, 치아, 피부 등 촬영 의사 진단 정확성 높여줘 지난 5월 보건신기술 인증 내년 맞춤형상품 출시

◆집에서도 귓속 등 촬영 베베스캔은 아이가 생기면 가장 먼저 사는 체온계에 가정용 영상 진단 시스템을 접목해 약 20만원에 선보이는 제품이다. 휴대폰, 태블릿PC 등과 휴대용저장장치(USB)로 연결하면 장비가 진단하는 곳 속, 귓속, 입속, 치아, 피부 등의 영상이나 사진을 볼 수 있다. 촬영한 사진을 뷰어 날뻐볼로 저장하면 일정 기간 아이의 몸 상태 변화를 살펴보기 좋다. 박동순 대표는 “밤중에 갑자기 목에 이상 증세가 생겼을 때 활용하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이 얼마나 부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진으로 보여 줄 수 있어서다. 유아에게 아토피를 유발하는 향광물질이 칫솔, 면봉, 물티슈 등에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검출 기능도 적용돼 있다.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아왔다. 5분 내에 수분, 유분, 모공, 색소 침착, 여드름 등을 측정해 고화질 영상으로 보여주는 제품을 내놨다. 피부 상태를 알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세계 1위 화장품기업 로레알을 비롯해 P&G,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에서 소비자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데 활용됐다. 박 대표는 “회사의 경쟁력과 고객 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이 가정용 영상진단 시스템이었다”며 “6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베베스캔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동순 아람휴비스 대표가 가정용 의료영상기기 베베스캔을 보여주고 있다.

술인증(NET)도 받았다. 작년 9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이 회사는 올해 120억 원의 매출을 내다보고 있다. ◆“원격의료 시장 선점할 것” 아람휴비스는 제품 출시를 통해 원격의료 시장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영상과 사진 등을 띄워 놓고 의사와 대화할 수 있는 앱(응용 프로그램) 개발도 마쳤다. 그는 “국

내에는 아직 원격의료기 허용되지 않았지만 도서와 산간 오지 등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며 “원격 진료 합법화에 앞서 제품을 내놓은 것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다. 그는 “중국에서 원격 진료뿐 아니라 인터넷 병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8월의 으뜸중기 제품 스타양산업조명-LED 완전방수 등 (032)683-4501 △엔텍스-원스텝오픈 마지(MAZI) 도어 록 070-8285-4500 △디프로 매트-프리미엄 금고 (051)831-4400 △아람휴비스-베베스캔 (031)732-6320

원 설립도 가능하다”며 “땅이 넓고 교통이 닿지 않는 곳이 많은 중국은 온라인 진료 수요가 큰 시장”이라고 말했다. 맞춤 화장품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맞춤 화장품은 소비자 개인의 피부 특성에 꼭 맞게 만든 화장품으로 2002년 사업 초창기부터 계속된 박 대표의 오랜 꿈이다. 그는 “소비자별 맞춤 화장품 제공시스템에 대한 비즈스 전략과 맞춤 화장품 제조기 특허를 획득했다”며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화장품 알고리즘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침구업계 ‘베개싸움 중’

코골이 방지-체온 조절 맞춤형 베개 매장 확대



베개시장이 침구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속면을 돕는 아이디어 제품이 대거 등장하고 맞춤형 베개를 골라주는 매장이 늘어나며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침구업체 경우모드는 체온에 따라 온도가 바뀌는 ‘아이스 필로우’ 제품을 내놨다. 베개 안에 작은 얼음조각이 들어 있어 체온과 주변 온도에 따라 녹아나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목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체온을 관리해준다. 15만원의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인기였다.

를 결정하는 경추와 수많은 신경 및 혈관이 지나가는 목 부분을 직접 받친다. 웰크론 관계자는 “베개를 잡아야 숙면 시장을 잡는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올초 프리미엄 침구 브랜드 세사리빙을 내놓은 웰크론은 지난달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코골이 개선용 베개를 특허 등록했다. 베개 속 인공기능 센서가 코고는 소리를 인지해 베개 안 에어백을 팽창시켜 기도를 확보해준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베개도 인기다. 국내 침구업계 1위 기업인 이브자리는 맞춤형 수면제품 매장인 슬립앤슬립을 2014년 31개에서 작년 101개까지 늘리고 목에 맞는 베개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알레르기는 지난 4월부터 6개 베개 중 하나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필로와이즈서비스를 전국 169개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가능성 베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1위 업체인 이브자리는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60%가량 증가한 보다베개 제품군이 올해도 60% 이상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다베개는 옆으로 누워 다리 사이에 끼우고 팔을 감싸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베개 제품이다. 이브자리 관계자는 “속면 관련 산업인 ‘슬리포노믹스(잠+경제)’ 중에서도 가능성 베개의 성장세는 눈에 띈다”고 말했다. 군소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자체 교정과 목주름 개선에 효과가 좋은 18만원대 ‘마시필로’는 클라우드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1500만 원을 모아 목표액의 520%를 달성했다. 자동차용품업체 볼스원은 지난 7월 헬스케어브랜드인 벨런스온을 론칭해 머리 미세혈관이 눌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벨런스온 필로우’를 내놨다.

분당서울대병원 “의사·의료기기벤처 연결해 상용화 돕는다”

제1회 브리지포럼 개최 제품 상용화 전략 등 조언

“기술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병원 등에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선 피부과 의뢰진과 협력해 임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신정원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이곳에 온 목적 중 하나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의뢰진과 전임상, 임상연구를 했으면 합니다.”(전진우 JSK바이오메드 대표) 지난 18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HIP) 4층 미래홀에서 제1회 HIP 브리지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적주재활기기 멀티스파인을 개발한 메디컬사이언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디

딤, 약물주입용 마용의료기기 미래셋을 개발한 JSK바이오메드 등 세계 헬스케어기업이 참가해 자신들의 기술을 소개했다. 의사와 투자자로 구성된 패널과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대학 연구진 등 100여 명의 참석자는 즉석에서 피드백을 하며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의사와 접촉할 기회가 적었던 의료기기업체들은 의뢰진에게서 제품 상용화 전략 등의 조언을 들었다. 전주현 메디컬사이언스 이사가 적주측만 증등 교정 치료기인 멀티스파인을 소개하자 박상민 정형외과 교수는 “척추보

다는 무료 발목 등 하지 재활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상적인 장점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자 문을 위해 참석한 조준제 액티너 대표는 “기기에 붙은 디스플레이에 게임 요소를 넣어 혼자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좋겠다”고 했다. 의사 창업 스타트업의 발표 뒤에는 사업화를 위한 조언이 쏟아졌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인 박문석 디딤 대표는 엑스레이 두정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과 비슷한 3차원 이미지를 만들어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기기

를 개발했다. 박수진 파트너스인 베스트먼트 이사는 “소속 병원 외에 다른 병원 의뢰진과도 함께 연구하면 제품 개발 후 다른 병원에 공급하거나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의뢰진과 의료기기업체 등을 연결해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기업 선정에 20여 곳이 지원했을 정도로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이학종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연구개발센터장(사진)은 “산업과 병원을 연결하는 좋은 다리가 되자는 취지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교류의 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0대 고지혈증 환자 급증

식습관 변화,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 성분이 혈관 벽에 쌓이는 고지혈증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60대 성인 10명 중 1명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122만 명이던 고지혈증 환자가 지난해 177만 명으로 매년 9.7%씩 늘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의 진료비 지출도 같은 기간 2327억원에서 3745억원으로 급증했다. 인구 10만 명당 고지혈증 환자는 60대가 9702명으로 가장 많았다. 70대(7450명), 50대(7175명)가 뒤를 이었다. 10대 환자는 2012년 10만 명당 144명에서 지난해 210명으로 매년 10%씩 증가해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

3000여개 건축자재 한곳에

24일부터 MBC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45회 MBC건축박람회’가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동아 냉난방 및 건축설비 박람회’와 함께 열린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냉난방 기자재, 조명 등이 전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차양-정호특별관도 마련된

다. 동아전람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건축시장업계의 동향을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3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3000여 개 제품을 선보인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동아전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무료 관람 초청장을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해준다. 문해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한경 쉐어하우스 전문가 과정



- 쉐어하우스 기획-설계-개발-운영 과정 전략 노하우 전격 공개**
- 쉐어하우스 개념 및 주택 시장 동향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김경민 교수
 - 쉐어하우스 유형과 주거공간 트렌드 분석 로컬디자인무브먼트 김수민 대표
 - 현장답방 쉐어하우스 현장 투어
 - 입주주인이 들려주는 실제 쉐어하우스 이야기 쉐어하우스 입주자 2명 토크 콘서트
 - 쉐어하우스 기획 실사례 뉴트프로퍼티 이현주 대표
 - 쉐어하우스 개발 전략 STS개발 신지혜 이사
 - 쉐어하우스 활용 임대주택 개발과 자금조달 전략 부동산투자경영대학원 리정호 대표
 - 쉐어하우스 기획 전략 에반하이브리드 이상욱 대표
 - 쉐어하우스 공간 설계와 인허가 (주)선랩건축사사무소 현승현 대표
 - 쉐어하우스 운영 핵심 전략 에반하이브리드 이상욱 대표
 - 공간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스페이스클라우드 정수현 대표

운영일정 : 2017년 8월 29일(화) ~ 9월 26일(화) 매주 화요일 19:00 ~ 22:00
 강의장 : 한국경제신문 본사 (2-5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교육비 : 70만원(7월 31일까지 등록시 얼리버드 할인 65만원) 제공사항 : 교재, 간식, 주차, 커뮤니티 지원
 등록문의 : (02) 360-4042, http://ac.hankyung.com